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보도자료

제공일 : 2011. 5. 2.

제공자 :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과 장 : 김 기 훈

사무관 : 김 성

전 화 : 02-500-1992, 1994

쪽 수 : 4P

붙임자료 : 있음(6P)

이 자료는 2011년 5월 3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콩·옥수수 등 주요곡물 국내산 많아진다 !

- '15년까지 주요곡물 자급률 14.3%까지 확대 -

□ 5월 2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밀, 콩, 옥수수, 잡곡 등 국내 주요 곡물의 생산량과 자급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요곡물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 하였다.

○ 100% 자급하고 있는 쌀과 달리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2015년까지 14.3%까지 향상시켜 나가고,

○ 특히, 국민의 제2주식이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의 자급률을 현행 1.7%에서 2015년까지 10%대로 대폭 높인다는 계획이다.

□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른 이상기후와 생산량 감소로 곡물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곡의 안정적 수급기반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식량위기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 아울러, 소비자들의 웰빙·건강식품 선호로 국내산 잡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감안하였다.

* 발작물 수요량 추이 : ('00) 5,141천톤 → ('08) 4,491 → ('09) 4,537 → ('10) 4,807

□ 먼저,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밭 농작업 기계화를 제고, 주산지별 규모화 단지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한다.

○ 품목별 정식기·수확기 등 10개 기종을 개발·보급하여 농기계 작업률을 현재 50%에서 2015년까지 60%까지 높여 나가는 한편,

- 개발된 농기계가 현장 농작업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150개소에서 '15년까지 350개소로 확대한다.

* 밭 작업별 기계화률 : 파종·이식 ('10) 4% → ('15) 10, 수확 ('10) 12% → ('15) 20

○ 또한, 소량·다품목의 영세한 생산구조를 주산지별로 규모화·단지화하기 위해

- 밀의 경우 제면·제빵·과자용 등 가공용도별 전문생산단지 조성('15년까지 24개소) 등을 통해 재배면적을 53천ha까지 늘리고,

- 콩은 생산·가공과 연계한 연구지원, 가공식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40개소의 Soy Belt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 50ha 규모의 특화된 웰빙잡곡단지(40개소)에 생산·가공·유통이 집적되도록 하여 국내 잡곡 산업의 선진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둘째, 농가조직화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한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집중 육성하고, 저장·선별·포장 등 수확후 관리와 상품화가 가능한 가공·유통시설의 현대화도 적극 지원한다.

○ 발작물 우수 브랜드 경영체 40개소('10년현재 : 14)를 육성하여 기반시설 설치, 농가조직화 및 컨설팅 등을 포괄 지원함으로써 주요곡물 생산량의 37%를 담당하도록 하며,

* 발작물 브랜드 경영체 : 농가를 조직화하여 생산기반을 규모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가공·판매를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경영체

○ 2015년까지 밀 생산량의 33%를 건조·저장할 수 있도록 개소당 9억원을 지원하여 46개소의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 개 소 수(누계) : ('11) 4개소 → ('13) 21 → ('15) 46/ 105억원

* 저장능력(누계) : ('11) 23천톤 → ('13) 40 → ('15) 65

○ 콩 품질향상, 비용절감 등 콩 유통 구조개선을 위해 선별·정선·저장·포장 과정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콩 유통종합처리장(SPC)을 시범설치·운영한다.

○ 아울러, 생산자단체, 가공·저장업체에 대한 원료곡 매입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하여 생산농가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셋째, 2015년까지 기능성 식품, 고부가가치 소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476억원의 R&D 예산을 투자한다.

○ 먼저, 가공용도별 품목다양화, 다수성·고기능성·내재해성 품종 등 66개 신품종을 개발하고,

* 품종개발 : ('11) 11품종 → ('12) 25 → ('13) 38 → ('14) 52 → ('15) 66

○ 다양한 가공식품 및 신소재 가공기술 개발 등을 통해 청소년 등 젊은 소비층의 입맛에 맞는 신제품 개발에 적극 투자한다.

* 다이어트 기능성 콩 식품개발, 항산화성분 강화 감자제품 등

○ 이와 함께 밀·콩 등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안정적 소비기반 확보를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요곡물의 국내 수급불안을 완화와 농가의 소득원 다변화, 웰빙·건강식탁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곡물(쌀제외) 수급안정 대책

1. 추진 배경

- 쌀은 구조적 과잉 상태인 반면, 발작물은 자급률이 낮아 국내 식량안보 여건은 여전히 취약한 현실
 - 쌀은 생산성 향상과 소비량 감소 등으로 구조적 공급 과잉
 - * 쌀 소비량 감소 : ('00) 93.6kg/1인 → ('07) 76.9 → ('08) 75.8 → ('09) 74.0 → ('10) 72.8
 - 반면, 발작물은 수입 의존으로 안정적 수급유지에 어려움
 - * 식량 자급률('10p) : 쌀 104.6%, 콩 31.7%, 옥수수 3.8%, 밀 1.7%, 잡곡 26.9%
 - 최근 국내외의 잇따른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작황이 부진해 대내외 농산물 가격은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
 - * 곡물가격지수¹⁾ : ('05) 103.6포인트 → ('08) 225.4 → ('10) 193.0 → ('11.1) 244.8
- ⇒ 주요 발작물의 안정적 생산·유통시스템 구축으로 식량위기에 적극 대응

2. 국내 곡물산업 현황

- 발작물은 수입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아 해외 의존도가 높고, 국내 생산량은 크게 적어 자급률은 10% 수준
-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나 생산량은 120만톤 수준 유지
 - * 발작물 생산량 : ('90) 1,207천톤 → ('95) 1,183 → ('00) 1,261 → ('05) 1,469 → ('09) 1,204
- 호당 재배면적은 전체농가의 86%가 1ha 미만으로 영세하고, 콩은 쌀보다 소득이 낮으나, 감자·고구마·팥·옥수수는 높은 수준
 - * 10a당 소득('09) : 쌀 549천원/10a, 콩 520, 봄감자 956, 고구마 1,024, 팥·옥수수 818
- 웰빙·건강식단 선호로 소비량이 증가해 최근 수요량 증가
 - * 발작물 수요량 추이 : ('00) 5,141천톤 → ('08) 4,491 → ('09) 4,537 → ('10) 4,807

1) 밀, 옥수수, 쌀의 도매가격 변동추이를 '90년부터 매월 지수로 만든 것 ('02~'04 평균치 100)

3. 국내 곡물산업의 문제점

- 소량·다품목 생산의 영세산업 구조로 생산기반이 취약
 - 조직화·규모화가 미흡하고, 논에 비해 농작업 기계화율이 낮음
 - * 호당 재배면적('05) : 콩 0.17ha, 옥수수 0.13, 감자 0.12, 고구마 0.06
 - * 농작업 기계화율(벼농사/발농사) : ('00) 68% / 27% → ('10) 92 / 50
 - 전문성 부족, 영세·고령농가가 많아 경쟁력 향상에 한계
 - * 전업농 수준인 2ha이상 농가는 4%, 경영주 평균연령 63.3세
- 관행적 유통구조 의존으로 브랜드화·마케팅 노력 부족
 - 단순수집 판매하는 비효율적 유통구조로 시장 교섭력 미흡
 - * 유통비용('08 aT 조사) : 콩 46%, 감자 71, 고구마 66 (쌀 21)
- 수입산 보다 가격 경쟁력이 낮아 수입 의존도가 높음
 - * 국내산·수입산 가격차 : 대두 8~4배, 옥수수 4~2배, 밀 4~1.6배

4. 곡물산업 육성 목표

목표	
시장 수요 및 국제 곡물시장 변화에 대응, 식량자급률 향상	
○ 주요 곡물 자급률('10년 10.6%)을 '15년까지 14.3%까지 향상	
◆ 밀 : 생산량('10) 35천톤 → ('15) 195 / 자급률('10) 1.7% → ('15) 10.0	
◆ 콩 : 생산량('10) 139천톤 → ('15) 170 / 자급률('10) 31.7% → ('15) 36.3	
◆ 잡곡 : 생산량('10) 27천톤 → ('15) 31 / 자급률('10) 26.9% → ('15) 30.4	
추진전략	1. 소비자·시장 중심의 생산기반구축
	2.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가공·유통시스템 구축
	3.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신규수요 확충
■ 수요를 반영한 기능성 품종개발, 우량종자 공급 확대 ■ 생산기반 규모화·집단화로 품목별 주산지 집중 육성 ■ 농기계 임대사업, 발작물 기계개발 촉진으로 영농 효율화	
■ 농가 조직화, 품질관리, 브랜드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생산·가공시설 확충을 통한 유통 구조 개선 ■ 농산물 비축수매 및 경관보전직불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을 통한 안정적 수급관리 및 홍보 강화 ■ 기능성 식품·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R&D 강화	

5. 추진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

소비자·시장 중심의 생산기반 구축

① 품종개발 및 우량종자 생산 공급 확대

- 품종 다양화, 숙기단축, 고기능성 품종 : ('11) 11품종 → ('15) 66
- 정부 보급종 공급 확대 : 밀 ('10) 7% → ('15) 35/ 콩 ('10) 24 → ('15) 35

② 주산지 규모화·단지화

- 브랜드단지 조성 확대('10 : 4개소 → '15 : 24), 간척지 밀 재배단지 조성(복합곡물단지 18천ha 활용) 등 재배면적 확대
- 권역별 콩 주산단지 Soy-Belt 조성 : ('12) 10단지 → ('15) 40
- 논에 옥수수 생산단지 조성 : ('12) 10개소 → ('15) 40
- 웰빙 잡곡특산단지 조성 : ('10년까지) 22개소 → ('15) 40
-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추진 : '13년까지 40천ha, 3백만/ha 지원
- 용수개발, 농로 정비·포장 등 발기반 정비 : ('15년까지) 25천ha

③ 친환경 발농업 지원

- 친환경 발농업지구 조성지원 : 지구당 최대 3억원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지원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④ 발농사 기계화를 제고

- 발농사 농작업 기계화 목표 : ('10) 46% → ('13) 55 → ('15) 60
- * 발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소 : ('10) 150개소 → ('15) 350
- 발농사용 기계 개발 : 파종, 이식, 수확 전용기계 집중개발

⑤ 작부체계 개발·보급 및 교육

- 현장기술 지원단을 운영 발작물 중심 작부체계 개발·보급
- 발작물 산업 정책, 기술 교육 및 현장 기술문제점 해결

브랜드경영체 육성 및 가공·유통 시스템 확충

① 발작물 브랜드경영체 육성

- 연도별 육성목표(누계) : ('10) 14개소 → ('14) 40

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공·유통시설 확충

- 밀 건조·저장시설 지원(누계) : ('11) 4개소 → ('15) 46
- 콩 유통종합처리장(SPC) : '15년까지 시범사업 3개소 설치
- 광역단위 고랭지 감자 유통센터 설치
- * 연차적 지원 : ('10) 50억원(국고 20), ('11) 40억원(국고 16)

④ 비축수매 및 가공업체 지원

- 콩 수매가격 현실화를 통한 정부 수매 비축물량 확보
- * 수매가격 변경 : ('10) 3,168원/kg → ('11) 시중 도매가 격의 80~90% 수준
- 원료곡 매입자금 지원 : ('11) 319억원 → ('15) 480
- * 농협자체 지원(잡곡) : ('10) 200억원 → ('15) 1,000억원

자율적 수급관리 및 신수요 창출

① 안정적 수급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홍보 강화

-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을 통한 안정적 수급관리 시스템 구축
- TV·버스광고, 지역축제 지원 등을 통한 소비 확대 홍보 강화

② 기능성 식품·고부가가치 소재개발 R&D 지원

- 기능성 가공식품 및 신소재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
- * '15년까지 가공식품·신소재개발 51과제에 201억원 투입
- 수확 후 관리·가공기술 및 식품 기능성 소재 연구개발

<참고2>

주요곡물 식량자급률 목표

(단위 : 천톤, 천ha %)

구 분		2010	2013	2015
계	수요량	4,807	4,866	4,906
	생산량	510 (161)	618 (194)	703 (221)
	자급률	10.6	12.7	14.3
밀	수요량	2,023	1,985	1,960
	생산량	35 (13)	125 (34)	195 (53)
	자급률	1.7	6.3	10.0
콩	수요량	438	456	468
	생산량	139 (70)	158 (80)	170 (86)
	자급률	31.7	34.6	36.3
옥수수	수요량	2,034	2,105	2,152
	생산량	77 (15)	82 (16)	86 (17)
	자급률	3.8	3.9	4.0
감자	수요량	114	115	116
	생산량	123 (21)	117 (21)	116 (21)
	자급률	107.9	101.4	100.0
고구마	수요량	98	104	108
	생산량	109 (21)	106 (20)	105 (20)
	자급률	111.2	102.4	98.5
잡곡	수요량	100	101	102
	생산량	27 (21)	29 (23)	31 (24)
	자급률	26.9	28.9	30.4

* ()는 재배면적임

<참고3>

2모작 작부체계 및 소득현황

작부체계		시험장 소득			현장·표준 소득			비고
		수량 (kg/10a)	소득(원)	소득 지수	수량 (kg/10a)	소득(원)	소득 지수	
벼 단작		-	-	-	520	623,741	100	표준소득
①논콩 단작 (대풍콩)		-	-	-	194	487,297	78	농가평균(강진)
		330	941,357	151	-	-	-	-
②감자+콩	감자	3,023	1,184,599	190	2,664	952,148	153	표준소득
	콩	359	1,038,179	166	194	487,297	78	농가평균(강진)
	소계	-	2,222,778	356	-	1,439,445	231	-
③옥수수+콩	옥수수	1,315	862,539	138	3,540개	735,852	118	표준소득
	콩	316	894,616	143	194	487,297	78	농가평균(강진)
	소계	-	1,757,155	282	-	1,223,149	196	-
④배추+콩	배추	7,056	906,433	145	6,588	802,537	129	표준소득
	콩	365	1,058,211	170	194	487,297	78	농가평균(강진)
	소계	-	1,964,644	315	-	1,289,834	207	-
⑤담배+콩	담배	250	992,290	159	255	1,029,969	165	표준소득
	콩	208	534,039	86	194	487,297	78	농가평균(강진)
	소계	-	1,526,329	245	-	1,517,266	243	-
⑥콩+밀	콩	225	590,796	95	194	487,297	78	농가평균(강진)
	밀	653	353,195	57	420	360,000	58	농가평균(합천)
	소계	-	943,991	151	-	847,297	136	-
⑦옥수수+밀	옥수수	1,136	692,373	111	3,540개	735,852	118	표준소득
	밀	653	353,195	57	420	360,000	58	농가평균(합천)
	소계	-	1,045,568	168	-	1,095,852	176	-
⑧인삼		500	7,417,814	297	601	8,916,212	357	* 4년기작 표준소득
⑨참깨		110	1,353,788	217	68	836,887	134	표준소득
⑩청보라+청옥수수		5,180	347,220	56	-	-	-	-